

# ‘겨울 양복’ 벗어던진 광주FC 박진섭 감독 “시원한 승리 ... 이젠 매일 옷 갈아입어야죠”

개막전 승리 후 무패행진 이어지자 한여름에도 ‘승리 상징’ 겨울양복 입어 첫 패배 뒤 여름옷에 머리도 짧게 수원 2-0 꺾고 2위와 승점 9점 차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연승 도전

‘겨울 양복’을 벗어던진 광주FC 박진섭 감독이 시원하게 승리 행진을 재개했다.

광주FC는 지난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2019 K리그2 21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이날 관중의 시선은 광주 지휘봉을 잡은 박진섭 감독에게 쏠렸다. 박 감독은 개막 후 지난 20라운드 FC안양과의 경기까지 똑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다.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무패행진이 계속되면서 ‘승리의 상징’이 된 겨울 양복을 벗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19경기 연속 지지 않았던 광주는 안양 원정에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그것도 1-7의 대패였다.

무패행진이 끝나면서 박 감독은 마침내 겨울 양복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이날 박 감독은 시원한 여름 옷차림에 머리까지 짧게 자르고 등장했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박 감독의 변신이었다.

새 출발선에 선 광주는 감독의 바람대로 승리로 시원하게 새로 시작했다.

광주는 후반 3분 윌리안의 골로 ‘0의 균형’을 깼다. 아슬만토프가 하프라인에서 길게 공을 띄워주었고 윌리안이 오른발로 슈팅으로 선취골의 주인공이 됐다.

꽤기에는 또 다른 외국인 선수 펠리페가 있었

다. 골키퍼 윙펑국의 두 차례 슈퍼 세이브로 어렵게 1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던 후반 45분, 이희균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펠리페 앞으로 떨어졌다. 펠리페가 침착하게 왼발로 상대 골대를 가르면서 승리의 추를 기울였다.

광주는 남은 추가 시간 4분을 깔끔하게 막으며 앞선 대패의 충격을 딛고 기분 좋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박 감독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 각오였다. 옷도 그렇지만 머리도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였다”며 “어려운 경기인데 선수들이 잘해줘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자칫 길어질 수 있는 패배를 빨리 반전시킨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첫 패배 후 바로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무실점이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 감독은 “지난 경기는 벨런스가 무너진 게 컸다. 그래서 1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선수들과 이야기 많이 했다”며 “골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균형이 안 좋은 경기였다. 다시는 그런 경기를 하면 안 된다며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언급했다.

아찔했던 패배를 쓴 보약으로 삼은 광주는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또 다른 무패행진에 시동을 걸었다. 같은 날 2위 부산이 아산에 0-2로 지면서 광주는 승점 9점 차 1위로 승격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박 감독은 화제가 됐던 ‘승리 징크스’를 털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승리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앞으로는 옷을 매일 갈아입든지 아니면 (승리 징크스를)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라며 웃은 박 감독은 “항상 승부의 세계는 이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다. (무패가) 깨진 게 많이 아쉬웠다. 그것도 너무 크게 절기 때문에 더 그랬다.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편하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시원한 여름옷 차림에 머리카락까지 짧게 자른 박진섭 감독.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12승 도전

8월 1일 쿠어스필드 다시 선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1.74)를 달리는 류현진(32·시애틀·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약물의 쿠어스필드에 도전한다.

다저스 구단은 콜로라도 로키스와 벌이는 원정 3연전 선발 등판 순서를 28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류현진은 8월 1일 오전 4시 10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 등판한다.

6월 29일 이래 33일 만에 다시 오르는 쿠어스필드 마운드에서 류현진이 약연을 끊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류현진은 6월 29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4이닝 동안 홈런 3방 포함 안타 9개를 맞고 7실점 해 패배를 안았다. 직전까지 1.27였던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1.83으로 급등했다.

적수가 없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으뜸 후보로 승승장구하던 류현진은 쿠어스필드에서 딱 한 번의 난조로 쌓아온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이제 잃었던 점수를 만회할 차례다.

류현진은 전반기에 보인 것만큼의 완벽한 제구는 아니었지만, 후반기 3경기에서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뽐내며 3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펼치고 1승도 보였다.

쿠어스필드에서 혼쭐 난 뒤 4경기에서 홈런을 한 방도 맞지 않았다.

류현진과 다저스의 최근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데 반해 콜로라도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에 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쿠어스필드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해발고도 1600m 고지에 자리 잡은 쿠어스필드에선 공기 저항이 적어 어떤 투수든 장타를 허용하기 일쑤다.

변화구 회전력도 떨어져 류현진도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등 팔색조 변화구 제구에 어려움을 겪는다.

류현진은 2014년 6월 7일 2실점 투구로 쿠어스필드에서 첫 승리를 낚은 이래 올해까지 4번의 등판에서 모두 5이닝을 못 넘기고 모조리 패배를 당했다.

‘로키산맥’ 난관을 어떻게 넘느냐는 류현진의 사이영상 레이스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정현, 부상 복귀

ATP 청두 챌린저 출전

약 5개월 만에 부상에서 복귀하는 정현(154위·한국체대)이 복귀전인 남자프로테니스(ATP) 청두 인터내셔널 챌린저대회(총상금 13만5400달러)에서 2번 시드를 받았다.

지난 27일 발표된 단식 본선 대진표에 따르면 29일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 단식 본선 1번 시드는 제임스 덕워스(145위·호주)가 받았고, 정현은 2번 시드에 배정됐다.

투어 대회보다 한 등급 아래인 챌린저 대회 단식 본선은 64명으로 진행되며 16번 시드 선수까지는 모두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정현은 2회전에서 다케우치 겐토(일본)-류한이(중국)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두 선수 모두 ATP 단식 랭킹이 없는 선수들이다. 정현은 2월 이후 허리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청두 챌린저를 복귀전으로 삼았다.

이번 대회 3번 시드는 이토 다쓰야(157위·일본), 4번 시드는 장쩌(216위·중국)에게 돌아갔다. 5번 시드는 정윤성(233위·CJ제일저당 후원)이다.

/연합뉴스



## ‘천덕꾸러기’ 터너

## 결단의 시간 온다

### 전반기 4승 9패·후반기 첫 등판 4회 못 넘기고 8실점 ... 엔트리 제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제 이름 터너다.

KIA 타이거즈는 후반기를 1패와 비로 인한 노게임·경기취소로 시작했다.

잠실로 올라가 두산을 상대로

26일 경기 비로 노게임이 되면서 27일 후반기 첫 경기를 끝냈다. 결과는 1-12 대패. 김기훈이 출격 준비를 했던 28일에는 아예 비로 경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1패가 쓰다.

KIA는 지난 27일 터너를 선발로 해 후반기 첫 승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터너의 후반기 첫 등판은 3.1이닝에서 끝났다. 터너는 4회 1사까지 9피안타 1볼넷 8실점(7자책)을 기록하며 조기 강판됐다.

터너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1회와 2회를 무실점으로 시작했지만 3회초가 끝

난 뒤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25분가량을 기다린 뒤 마운드에 오른 터너는 선두타자 김재호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이어진 정수빈의 타석에서는 희생번트를 잡아 악송구를 했다. 그 사이 1루에 있던 주자 김재호가 홈까지 들어왔다. 이후 터너는 급격히 흔들렸고, 3회에만 4실점

을 했다. 터너 입장에서는 비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올 시즌 내내 터너는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유독 터너가 출장하는 날 내·외야에서 야수진의 실책과 실수가 속출했다. 터너는 동료의 실수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결과도 좋지 못했다. 터너는 전반기 20경기에 나와 111.23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고 5.16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9패를 기록했다.

전반기 막바지에는 ‘선발 테스트’까지 받아야 했다. 어렵게 선발 자리를 지켰지만 후반기 첫 등판 성적이 좋지 못했고 상대전적 약세로 다음 등판은 쉬

어게 됐다.

정상 로테이션이라면 터너는 다음 주말 안방에서 열리는 NC와의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올 시즌 터너는 NC전 3경기에서 전패했다. 3경기에서 겨우 11.1이닝을 소화했고, 평균자책점은 11.12까지 치솟았다.

결국 터너는 29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재등용될 예정이다.

터너는 두산전에서 최고 구속 154km를 던지는 등 올 시즌 KIA에서 가장 빠른 공을 구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성적은 스피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믿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했고 KIA의 ‘가을 잔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터너의 자리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KIA.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